

백남준 국내 소개 ‘정기용’ 소장작 대거 전남에

원화랑 설립 ‘제1세대 화랑주’로 평가
도립미술관 3월 8일까지 6~9전시장

원화랑 99·김영덕 10 등 총 109점 선봬
아카이브로 도록 24권과 삽화 10점도



이용노 작 '구성'

2021년 고(故) 이건희 회장의 소장 미술품을 유족들이 전국 공립미술관에 기증하면서 시작된 전시를 ‘이건희 컬렉션’이라 한다. ‘이건희 컬렉션’으로부터 21점을 기증받은 전남도립미술관은 2021년(9.1~11.7)과 2023년(8.17~11.12) 두차례 전시를 열었다. 올해 5주년이 된 전남도립미술관은 신생 미술관으로 역사가 짧고 막 안착을 위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에 앞서 2021년 미술애호가인 BTS 리더 RM이 미술관을 방문한 무렵만 해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하고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는 이처럼 유명인의 방문도 그리 경계할 필요는 없었다. RM 같은 화제의 인물들의 방문을 통해 인지도를 쌓아야 미술계 역시 집중하기 때문이다. 현 ‘이지호 관장 체제’는 전남도립미술관의 서막을 탄탄하게 다져 도립미술관이 이른 시간에 그나마 빠르게 안착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인지도가 어느 정도 오르다보니 유수의 전시들이 잇따라 열렸고, 좋은 작품들을 확보할 수도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 성사된 ‘정기용 컬렉션’ 역시 전남도립미술관이 이제 그저 신생미술관으로 전남 구석진 지역에 있는 미술관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준 대표적 사례로 읽힌다. ‘정기용 컬렉션’의 인천 출생 정기용 대표(1932~2025)는 명동회랑과 동산회랑 등 국내 3대 화랑 중 하나로 꼽히는 원화랑(서울 인사동)을 1978년 설립해 한국모더니즘을 재조명하는데 힘쓴 인물이다. 그래서 ‘제1세대 화랑주’로 불려왔다.

특히 그는 비디오아트 창시자인 백남준의 국내 첫 전시(1984.2)를 열어 알린 장본인이었다. 정 대표는 백남준이 1984년 신년에 펼쳐진 세계 최초의 위성중계 예술 프로젝트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 열릴 수 있도록 미리 2만 달러의 작품을 사주며 후원했다.

이런 지점 때문에 정기용 대표는 한국현대미술사에서 중요 인물 중 한명으로 거론된다.

그는 생전에 “일본의 현 단위 미술관에도 있는 명품들이 우리 나라에 한 점도 없다는 게 내가 무리해서 비싼 작품을 사 모으게



마크 샤갈 드로잉 'тан생. 나의 생애'

된 이유”라고 밝힌 바 있어 그가 작품들을 매입. 소장에 힘쓴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전남도립미술관 기증에 앞서 자신이 소장한 김종영·백남준 등의 작품을 이미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평생 검소하게 살던 정기용 대표가 수집 소장했던 근현대 명작들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전남도립미술관에 소장되는 경사를 맞았다.

이번 사설이 대내외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26년 기증작품 전으로 마련된 ‘정기용 컬렉션’ 때문이었다. 이 전시는 ‘정기용 컬렉션: 플릭서스에서 모더니즘까지. 김영덕: 시대의 염원’이라는 타이틀로 지난 23일 개막. 오는 3월 8일까지 6~9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다.

전쟁과 분단, 인간 존엄의 문제를 평생 회두로 삼아온 한국 구상 회화의 대표 작가인 충남 서산 출생 김영덕 작가(1931~2020)의 유작 뿐만 아니라 ‘색의 결, 회의 숨’이라는 타이틀로 진행 중인 전남 장흥 출생 김선우 작가(중앙 대명 예술교수, 2025.12.23~3.22 1~4전시)의 기획초대전까지 이뤄지고 있어 꾸준히 전시관람을 할 경우 매우 유의미한 현대미술의 한 페이지를 속지할 수 있는 기회다.

‘정기용 컬렉션’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작품도 작품이지만 삶

의 자세인 듯하다. 그의 삶은 소탈함 그 자체로 알려져 있다. 전남도립미술관으로 작품들이 온데는 이지호 관장이 그의 아들로부터 들은 대화 한 토막에서 유추할 수 있다.

“미술계 사람들이 전남을 주라고 그랬대요. 이제 새로 생겼고 오래된 미술관들 가면 이렇게 노출되기도 힘드니까. 그냥 전남이 잘하고 있으니까 전남을 쥐라. 아래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받고 ‘그럼 한번 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아드님도 아버님이 그렇게 소탈하셨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해서 그의 아들 미술관을 한번 다녀간 뒤, 기증은 금물살을 끊고 성사돼 이번 전시를 통해 소장작들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이 관장 또한 “퀄리티 높은 작품들을 기증받게 돼 영광”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이번 정기용 컬렉션의 핵심은 99점 중 33점에 이르는 백남준, 요제프 보이스, 존 케이지 등 플릭서스 관련 예술가들로 꾸며졌다. 이번 기증에 포함된 요제프 보이스와 존 케이지가 함께 제작한 ‘보이스 복스’(Good Morning, Mr. Orwell)로 명명된 작품과 백남준의 판화 20점은 이번 기증의 백미로 평가된다.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 소장작들로는 백남준과 플릭서스 외에 프랑스 쉬포르 쉬르파스, 김중만 등 국내외 사진 컬렉션, 마크 샤갈의 1922년 드로잉 작품 ‘탄생. 나의 생애’, 양리 드루즈 로트레크의 판화 작품 등이다.

한국 추상작품들은 현대미술사의 거장들인 고암 이응노(1904~1989), 수화 김원기(1913~1974), 박서보(1931~2023)의 작품이 발길을 붙잡았으며, 문미애 차우희 황호섭 등 1980~90년대에 제작된 회화, 이형우 박종배 민균홍 최기석의 조각 작품, 강승희의 판화, 정현의 드로잉 등이다.

전시에는 원화랑에서 기증된 정기용 컬렉션 99점 외에 김영덕 작가의 작품 10점 등 총 109점을 만날 수 있다. 아카이브로 정기용 컬렉션의 도록(24권·기증 4권) 및 김영덕 작가의 삽화(10점)도 출품됐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정기용 컬렉션: 플릭서스에서 모더니즘까지. 김영덕: 시대의 염원' 전시 중 정기용 컬렉션 전경.

수학·첨단기술 들여다보기…신나는 ‘과학스쿨’ 개강

2~12월 짹수달 셋째주 수요일 오후 7시 운영
과학관·GIST서…기념품·회원권·전시 제공도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과 광주과학기술원(총장 임기철)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6 과학스쿨’이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과학스쿨’은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우수한 교수진과 연구원들이 강연자로 나서 최신 연구 성과와 과학적 지식을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대중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정기 강연 프로그램이다.

2026 과학스쿨은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짹수 달 셋째 주 수요일 오후 7시 국립광주과학관 상상홀(상반기 2·4·6월), GIST 오룡관 101호(하반기 8·10·12월)에서 총 6회 열린다.

올해 강연은 일상 속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부터 첨단 과학기술까지 다채롭게 구성됐다. 상반기에는 2월 11일 ‘이 수학 증명 문제, 저도 증명할 수 있어요!’(수리과학과 김동수 교수), 4월 15일 ‘나의 작은 선택이 만드는 커다란 물결-사회 물리학으로 세상 읽기’(인문사회과학부 진규호 교수), 6월



17일 ‘SF영화가 현실로, 디스플레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고등광기술연구원 이창열 박사) 강연이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8월 19일 ‘제로콜라는 왜 달까. 설탕 대신 들어간 과학’(신소재공학과 권인찬 교수), 10월 21일 ‘벼려지려는 전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법은?’(화학과 박찬호 교수), 12월 16일 ‘블랙홀. 웜홀 그리고 양자 정보’(물리광학과 김근영 교수) 등이 이뤄진다.

올해 참여자 혜택이 대폭 강화됐다. 강연 참여 시 스템프 이벤트를 운영해 분기별로 3회 이상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기

념품이 제공된다. 5회 이상 참여한 출석왕에게는 특별 기념품과 국립광주과학관 연간회원권이 증정된다. 또한 상반기 스템프 미션 달성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중 GIST 연구소 견학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과학스쿨 모집 인원은 회당 150명으로 전 연령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 (<https://www.sciencecenter.or.kr>)을 통한 온라인 사전예약(선택순)으로 운영되며, 올해부터는 원활한 행사 운영과 노소(No-Show) 방지를 위해 참가비 1000원이 책정됐다.

행사를 담당한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실 최원진 연구원은 “과학스쿨은 연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시민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참여형 강연”이라며 “앞으로도 GIST와의 협력을 통해 수준 높은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립광주과학관 사이버과학관을 통해 지난 강연 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사회 안전망 강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재)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오미란)이 광주 시민의 폭력 예방 인식 제고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가 교육 현장으로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교육으로 폭력에 대한 이해를 넘어 개인과 주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예방 교육이다. 교육은 폭력의 유형별 특징과 발생 구조를 이해하고, 상황별 예방 방법과 대처 요령을 중심으로 구성해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내용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가 폭력 상황을 인지하는 데 그

치지 않고, 스스로와 주변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은 폭력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단체, 시민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현장 방문 중심으로 운영된다. 1회 1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분야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신청 기관의 특성과 교육 목적에 따라 원하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운영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10월까지다. 선착순으로 접수

및 진행될 예정이다. 인원은 최소 1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공공기관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 유치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 등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미란 대표이사는 “폭력예방은 특정 집단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현안”이라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광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 속에서 안전을 지키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교육 희망일 기준 최소 14일 전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062-670-0557.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40주년 공연 이후 은퇴 ‘임재범 콘서트’

내달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팬과 교감 무대

최근 공식적으로 은퇴를 시사하며 가요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록의 전설’ 임재범이 데뷔 40주년 기념 전국투어 콘서트 ‘나는 임재범이다’를 통해 광주 팬들과 만난다.

광주에서의 무대는 40주년 공연을 통해 기수로서의 길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그의 마지막 무대가 될 전망이어서 기대를 모으는다. 무대는 전설의 ‘마지막’ 무대를 가슴에 새기려는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 임재범의 음악 인생을 총망라하는 뜻 깊은 여정이 될 예정이다.

이번 투어의 서막을 알린 서울 공연에서는 국내 공연계에서 보기 드문 ‘음향 이미지비 시스템’을 전격 도입,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했다. 이 시스템은 임재범 특유의 거친 질감의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선을 360도 입체 사운드로 구현, 관객들에게 생애 최고의 청각적 경험을 전했다.

서울에서의 압도적 전설은 부산, 수원, 고양 공연을 거치며 전국으로 확산돼 광주에서 그 열기를 이어받는다. 광주 공연은 전설이 걸어온 40년 음악 여성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주요 무대로, 아티스트와 팬이 교감하는 뜨거운 현장

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연 관계자는 “뉴스 보도 이후 아티스트 본인이 이번 투어 무대 하나님나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서울 공연에서 선보일 혁신적인 음향 연출과 무대 노하우를 투어 전반에 녹여내, 광주 팬들에게도 임재범이라 는 시대의 아이콘이 전하는 깊은 울림을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공연은 오는 2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펼쳐진다. 입장권 예매는 티켓링크와 NOL티켓에서 하면 된다. 정체경 기자 view2018@

